

Q 양돈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돈협회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분만시 산을 예방하고 분만을 촉진하기 위해 옥시토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옥시토신을 근육에 2ml 주사하면 5~10분 정도의 분만촉진 효과를 보고 또 혈관에 2ml 주사하면 근육 주사시보다 2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산돈이 분만을 하다 지연이 되어 혈관에 옥시토신 2ml를 주사했더니 30초가 경과한 후 모돈이 호흡을 거칠게 하고 입에서 거품을 내며 약간의 경련과 함께 흥분이 있었습니다. 그후 1분이 지난후 3마리의 자돈을 잇달아 분만했는데 그 중 2마리가 뒷다리부터 나오고 주사후 30~40분 사이에 분만이 끝났습니다. 처음으로 옥시토신을 혈관에 사용하여서 효과는 본 것 같은데 모돈이 흥분하여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분만후 1주일이 지났는데 모돈과 자돈의 상태는 모두 양호합니다. 혈관에 옥시토신을 주사하는 방법이 앞으로도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인지요?

(충남 홍성군 갈산면 가산리 산74-1 천광산업(주) 고병훈)

A 양돈장에서 가장 신경써야할 업무중의 하나는 분만사의 모돈분만전후 처치일 것입니다.

분만시 미약진통일 경우 모돈의 진통을 강하게 하여 태아의 만출을 촉진시키고자 옥시토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였을 경우의 효과는 여러가지입니다. 즉 진통이 미약할 때 진통을 강하게 하며, 분만 후 자궁내 후산정체가 되었거나 이물이 있을 경우 배출시키며, 분만직후 젖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젖의 분비를 촉진시켜주며, 유방내 유즙의 정체로 인한 유방염을 예방하고 산후 자궁출혈시 지혈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분만이 시작되어 1두 분만후 주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만모돈의 산도가 충분히 열려있지 않고 양수가 터져있지 않았을때 옥시토신을 주사하면 자궁파열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사용하신 대로 혈관주사할 경우는 혈관주사 즉시 투여한 옥시토신이 혈액으로 전량 유입되므로 옥시토신의 혈중농도가 갑자기 높아

져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평활근의 강한 수축 및 마비증세가 와서 귀하게서 목격하신 호흡촉박, 흥분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만시 모돈에 옥시토신의 사용은 가급적 근육내 주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분만시 산도가 좁은 모돈은 태아가 막혀만 출되지 못할 경우 손과 팔을 비눗물로 씻고 철저히 소독하여 손으로 태아의 머리카라리를 잡아 진통하는 시간과 보조를 맞추어 만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분만시 태아가 너무 크거나 태아의 발가락이나 치아에 의하여 모돈의 자궁이 파열될 경우 상당한 출혈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지혈제와 옥시토신등을 주사하고 탈지면으로 파열부위를 지압하여 지혈하는 방법과 봉합사로 결찰하여 지혈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생자돈에게 분만후 처치를 끝내고 20-30분 보온상자에서 피부를 말린 후 초유급여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자돈이 젖을 빨면 모돈의 체내에 최유호르몬이 분비되며 혈액내 옥시토신의 함량이 높아져 분만이 촉진된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분만이 완료되면 분만모돈은 기력이 손실되고 세균감염의 우려가 많으므로 광범위항생제, 대사촉진제, 칼슘제 및 포도당 등을 모돈에게 투여하며 손으로 태아를 끄집어낸 경우 자궁내에 항생제를 주입하여 자궁내막염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또 신생자돈들에게는 원활한 포유가 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특히 초유는 모든 신생자돈이 골고루 섭취하도록 해주며 출생 후 5시간 경과하면 초유내의 면역항체흡수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분만후 30분-1시간내에 초유섭취가 되도록 해야됩니다. 그리고 포유회수도 가급적 자주 즉 하루에 12-15회 정도가 바람직하며 충실한 자돈일수록 뒷쪽으로 포유시키는 것이 균일한 자돈생산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초산돈의 경우 산도의 발달이 전혀 없고 도저히 정상적인 분만이 불가능할 경우 동물병원에 연락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의뢰하는 것도

모돈과 자돈을 함께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응답 : 한국바이오텔화학 동물약연구소 예재길 과장〉

A 임신돈의 분만을 촉진할 목적으로 옥시토신을 쓸 경우에는 20~40단위 (USP Unit)를 근육주사 합니다. 1회 주사하여 반응이 없거나 약하다고 판단되면 15분후에 다시 근육주사 합니다.

귀하는 2번째 주사를 정맥으로 했는데 급속히 주입하여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옥시토신은 대개 한번의 주사로서 자궁에 수축이 일어나서 태아가 나오는데 드물게 2번 주사를 해야 효과를 보는 예도 있습니다.

두번째 주사도 근육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 서울대 수의과대 박응복 교수〉

Q 저는 3년전에 양돈을 시작했습니다. 모돈 30두와 비육돈 25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작년 겨울부터 일부 돼지에 AR이 감염되었습니다.

돼지가 AR에 감염되면 어떻게 해야만이 최선의 방법이 될까요? 또 감염되지 않은 임신모돈과 자돈들은 어떻게 해야 감염을 막을 수 있는지요? AR에 대해서 상세히 그리고 조치사항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방접종은 현재 모돈(임신돈) 2회, 자돈(20일령)에 1회 접종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군 선장면 죽산리 2구 228 학생농장 이석근〉

A 귀하의 서신 잘 받아 보았습니다. AR로 인해 걱정이 많겠군요. 본지에서는 지난 85년 12월호에 「특집 : 겨울철 호흡기 질병을 줄이자」라는 제목으로 AR을 비롯하여 겨울철에 감염되기 쉬운 호흡기 질병에 관하여 자세하게 게재한 바 있습니다.

위축성비염의 특징, 감염경로, 피해, 예방대

책, 치료방법 등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이 자세히 게재되어 있으니 월간양돈 85년 12월호 56~6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관하신 책이 없으시다면 양돈협회 홍보부(778~5540) 전화 또는 서신을 주시면 특별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자 : 대한양돈협회 홍보부 대리 김동성〉